

을 이르는 말.

■ <심화 학습>

- ② 사개(명) - 상자 따위의 모퉁이를 끼워 맞추기 위하여 서로 맞물리는 끝을 들쭉날쭉하게 파낸 부분. 또는 그런 짜임새.
· 사개(가) 맞다 - 말이나 사리의 앞뒤 관계가 빈틈없이 딱 들어맞다.
- ③ 걸을 주다 -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에게 가까이할 수 있도록 속을 터 주다.
- ④ 손(이) 걸다 = 손(이) 크다 - 씹씹이가 후하고 크다. / 수단이 좋고 많다.
- ⑤ 엉너리(명) - 남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어벌쩍하게 서두르는 짓.
예) 엉너리를 부리다./ 엉너리를 치다.

5. 다음 중 ㉠~㉣의 독음이 옳지 않은 것은?

元來 文學은 다못 情的 滿足 卽 ㉠遊戲로 생겨나실디며 또 多年間 如此히 알아와시나 漸漸 此가 進歩 發展함에 及하야는 理性이 添加하야 吾人의 思想과 理想을 支配하느 主權者가 되며 人生 問題 解決의 擔任者가 된지라. (중략) 故로 所謂 文學은 昔日 遊戲的 文學과는 全히 異하느니 昔日 詩歌 小說은 다못 ㉡鎖閑遣悶의 娛樂的 文字에 不過하며 또 其 作者도 如等하 目的에 不外하여시나 今日의 詩歌 小說은 決코 不然하야 人生과 宇宙의 眞理를 ㉢闡發하며 人生의 行路를 研究하며 人生의 情的 狀態 及 變遷을 ㉣攷究하며 또 其 作者도 가장 沈重하 態度와 精密하 觀察과 深遠하 想像으로 心血을 ㉤灌注하느니 昔日의 文學과 今日의 文學을 混同티 못홀디로다.

- ① ㉠: 유희 ② ㉡: 쇠한유민
- ③ ㉢: 천발 ④ ㉣: 고구
- ⑤ ㉤: 관주

■ 정답 : 2

<본문 읽기>

원래 문학은 자못 정적 만족 즉 ㉠유희로 생겨나실디며 또 다년간 여차히 알아왔으나 점점 차가 진보 발전함에 급하여 이성이 첨가하여 오인의 사상과 이상을 지배하는 주권자가 되며 인생 문제 해결의 담임자가 된지라. (중략) 고로 소위 문학은 석일 유희적 문학과는 전혀 이 하나니 석일 시가 소설은 자못 ㉡쇠한견민의 오락적 문자에 불과하며 또 기 작자도 여등한 목적에 불외하였으나 금일의 시가 소설은 결코 불연하여 인생과 우주의 진리를 ㉢천발하며 인생의 행로를 연구하며 인생의 정적 상태 급 변천을 ㉣고구하며 또 기 작자도 가장 심중한 태도와 정밀한 관찰과 심원한 상상으로 심혈을 ㉤관주하나니 석일의 문학과 금일의 문학을 혼동치 못할지로다.

- ② 鎖閑遣悶 - 쇠한유민(X) → 쇠한견민(O)

* 遣 - 보낼 견

遣 - 끼칠 유

* 鎖閑遣悶 - 쇠사슬 쇠, 한가할 한, 보낼 견, 번민할 민

- 세상과 격리되어 한가히 앉아 답답한 속을 풀.

■ <심화 학습>

- ① 遊戲(유희) - 놀 유, 놀 희
- 즐겁게 놀며 장난함. 또는 그런 행위.
- ③ 闡發(천발) - 열 천, 필 발
- 드러내어 밝힘.
- ④ 攷究(고구) - 상고할 고, 연구할 구
- 자세히 살펴 연구함.
- ⑤ 灌注(관주) - 물덜 관, 물덜 주
- 물이 흘러들어 감. 물을 담.

6. 다음 중 화자가 복수로 설정된 것은?

- ① 頭流山 兩端水를 네 듯고 이제 보니,
桃花 쓴 뭍은 물에 山影조차 잠겨세라.
아희야, 武陵이 어디미오, 나는 옌가 흐노라.
- ② 호미도 놀히언마르논 날?티 들 리도 업스니이다.
아바님도 어이어신마르논
위 덩더등성 어마님?티 괴시리 업세라.
아소 님하, 어마님?티 괴시리 업세라.
- ③ 식어마님 며느라기 낫바 벽 바흘 구루지 마오
빛에 바든 며느린가 갑세 쳐 온 며느린가 밤나모 서근 등걸에
휘초리 나니긋치 알살픽션 식아버님, 벗 뵈 췌췌긋치 되종고신
식어마님 三年 거론 망태에 새 송곳 부리긋치 췌췌긋친
식누이님 唐피 가론 밧티 돌피 나니긋치 시노란 윗곳 곱튼
피췌 누논 아돌 하나 두고,
건 밧티 메곳 곱튼 며느리를 어딴을 낫바 하시논고.
- ④ 흐르밤 서리김의 기러기 우러 널 제
危樓에 혼자 올라 水晶簾을 거든마리
東山의 돌이 나고 北極의 별이 뵈니
님이신가 반기니 눈물이 절로 난다.
淸光을 쥐여 내여 鳳凰樓의 붓티고져.
樓 우히 거러 두고 八荒의 다 비취여
深山窮谷을 점낫?티 밍그소서.
- ⑤ 두터비 푸리를 물고 두힘 우히 치드라 안자
것년산 바라보니 白松骨이 썬 잇거늘, 가슴이 금즉하여 풀떡
뛰여 내뿔다가 두힘 아래 잣바지거고.
모쳐라, 놀넨 널식망정 에혈질 번하괘라.

■ 정답 : 5

- 전문 풀이 -

<두꺼비>가 파리한 마리를 물고 두엄 위에 뛰어올라 앉아서,

건너편 산을 바라보니 날랜 흰 송골매 한 마리가 떠 있으므로 가슴이 섬뜩하여지고 철령 내려앉아 펄쩍 뛰어 내달다가 두엄 아래로 나자빠졌구나.

“다행스럽게도 몸이 날랜 <나>였기에 망정이지 동작이 둔한 놈이 었다면 다쳐서 몸에 멍이 들 뻔하였구나.”

* 처음에는 3인칭(두꺼비)으로 시작하였다가 마지막에는 1인칭(나)으로 화자가 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 화자의 복수 설정

※ 두꺼비를 의인화하여 약육강식(弱肉强食)을 풍자한 사설시조로, 백성을 못살게 굴던 양반들이 한족(漢族)이나 왜인(倭人), 북방 후진 민족 등 강대국의 침략에 직면하면 여지없이 굴복하고 마는 비굴한 태도를 그렸다.

■ <오답 풀이>

* 시적 화자(서정적 자아)

- ① 지리산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무릉도원이라 노래하는 나.
- ② 어머니의 사랑이 호미보다 잘 드는 낫이라고 예찬하는 나.
- ③ 며느리를 나쁘다고 여기시는 시댁어른들이 원망스런 나.
- ④ 임(임금)을 그리워하며 임의 선정(善政)을 희구(希求)하는 나.

7. 다음 중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에 맞게 쓴 것은?

- ① 나사가 너무 세게 췌 있어서 풀기 어렵다.
- ② 수업 시간에 떠들지 말아라.
- ③ 영희는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왔다. 그리고 나서 잠을 잤다.
- ④ 네 기분은 어떻냐?
- ⑤ 철수는 지난 시험에서 만족스런 결과를 얻었다.



- 정답 : 1
- * <죄다>가 기본형이므로 <죄 + 어 = 죄>로 표기하는 것이 바르다.
- <오답 풀이>
- ② <말다>는 직접 명령의 경우 <마라/마>로 표기해야 하고, 간접 명령의 경우 <말라>로 표기해야 한다. 따라서 그 어떤 경우에도 <말아라>의 표기는 불가능하다.
- 직접 명령 : 수업 시간에 떠들지 마(라).(O) / 간접 명령 : 수업 시간에 떠들지 말라.(O)
- ③ <그리고>는 <단어, 구, 절, 문장 따위를 병렬적으로 연결할 때 쓰는 접속 부사>이다. 문장의 의미상 <앞의 동작을 한 후에>라는 의미를 표현하려면 <그리고 나서 - 그리고 나서>를 사용하는 것이 바르다.
- 영화는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왔다. 그리고 나서 잠을 잤다.
- ④ <어떨다>는 <ㄹ불규칙 용언>으로 <모음, ㄴ/ㄷ/ㄹ어미> 앞에서 <ㄹ>이 탈락한다. 따라서 <어때 - 어떠니/어떠냐 - 어떠면 - 어떨>로 활용한다. 주어진 문장에서는 <어떠냐>로 활용하는 것이 바른 표기다.
- 네 기분은 어떠냐?(O)
- ⑤ <만족스럽다>는 <ㅂ불규칙 용언>으로 모음 앞에서 ㅂ이 <ㅌ>로 변한다. 따라서 <만족스러운>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른 표기다.
- 철수는 지난 시험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다.(O)

8. 다음 중 문맥상 ㉠~㉣의 뜻풀이로 옳지 않은 것은?

무거운 기분의 침체와 한없이 늘어진 생의 권태는 나가지 않는 나의 발길을 남포(南浦)까지 끌어왔다.

귀성한 후, 칠팔 개삭간의 불규칙한 생활은 나의 전신을 ㉠해면 같이 짓두들겨 놓았을 뿐 아니라 나의 혼백까지 ㉡두식하였다. 나의 몸을 어디를 두드리든지 알코올과 니코틴의 독취를 내뿜지 않는 곳이 없을 만큼 피로하였었다. 더구나 육칠월 ㉢성하를 지내고 겹옷 입을 때가 되어서는 절기가 급변하여 갈수록 몸을 추스리기가 겨워서 동네 산보에도 식은땀을 줄줄 흘리고 친구와 이야기하려면 두세 마디째부터는 목침을 찾았다.

그러면서도 무섭게 양분(昴奮)한 신경만은 잠자리에서도 눈을 뜨고 있었다. 두해 세해 울 때까지 옆치락뒤치락거리다가 동이 번히트는 것을 보고 겨우 눈을 붙이는 것이 일주일간이나 넘은 뒤에는 불을 끄고 드러눕지를 못하였다.

그 중에도 나의 머리에 ㉣교착하여 불을 끄고 누웠을 때나 조용히 앉았을 때마다 가혹히 나의 신경을 엄습하여 오는 것은 해부된 개구리가 사지에 핀을 박고 칠성판 위에 자빠진 형상이다.

내가 중학교 이년 시대에 박물관실험실에서 수염 텃석부리 선생이 청개구리를 해부하여 가지고 더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오장을 차례차례로 끌어내서 자는 아기 누이듯이 ㉤주정병에 채운 후에 웅위하고 서서 있는 생도들을 돌아다보며 대발견이나 한 듯이,

“자 여러분, 이래도 아직 살아 있는 것을 보시오.”

하고 뽀족한 바늘 끝으로 여기저기를 콕콕 찌르는 대로 오장을 빼앗긴 개구리는 진저리를 치며 사지에 못 박힌 채 발딱발딱 고민하는 모양이었다.

팔 년이나 된 그 인상이 요사이 새삼스럽게 생각이 나서 아무리 잊어버리려고 애를 써도 아니 되었다. 새파란 메스, 닭의 똥만한 오물오물하는 심장과 폐, 바늘 끝, 조그만 전율…… 차례차례로 생각날 때마다 머리끝이 쭈뼛쭈뼛하고 전신에 냉수를 끼얹는 것 같았다.

- ① 해면 : 해면동물(海綿動物)
- ② 두식 : 혼란스럽게 함
- ③ 성하 : 한여름
- ④ 교착 : 아주 단단히 달라붙음
- ⑤ 주정병 : 알코올이 담긴 병

- 정답 : 2
- * 두식(蠹蝕) : 좀 두, 좀먹을 식) - 좀이 슬다.
- 불규칙한 생활이 <전신을/ 짓두들겨 놓았고> <영혼을/ 좀 먹었다>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 <심화 학습>
- ① 해면(海綿 바다 해, 이어질 면) - 해면동물(海綿動物)을 가리키는 말.
- ③ 성하(盛夏) : 담을 성, 여름 하) - 한여름
- ④ 교착(膠着 아교 교, 붙을 착) - 아주 단단히 달라붙음.
- ⑤ 주정병(酒精瓶 술 주, 정밀할 정, 병 병) - 알코올 담긴 병

9. 다음 중 한자의 표기와 뜻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 ① 氣像 : 대기 속에서 일어나는 자연 현상
- ② 司正 : 그릇된 일을 다스려 바로잡음
- ③ 改正 : 이미 정하였던 것을 고쳐서 다시 정함
- ④ 收容 : 어떠한 것을 받아들임
- ⑤ 現象 : 나타나 보이는 현재의 상태

- 정답 : 2
- * 司正(사정/ 맡을 사, 바를 정) - 그릇된 일을 다스려 바로잡음.
- ※ · 事情(사정/ 일 사, 뜻 정) - ① 일의 형편이나 까닭. ② 어떤 일의 형편이나 까닭을 남에게 말하고 무엇을 간청함.
- 査正(사정/ 조사할 사, 바를 정) - 조사하여 그릇된 것을 바로잡음.
- <오답 풀이>
- ① · 氣像(기상/ 기운 기, 형상 상) - 사람이 타고난 기개나 마음씨. 또는 그것이 겉으로 드러난 모양. = 의기(意氣)
- 氣象(기상/ 기운 기, 코끼리 상) - 대기 중에서 일어나는 물리적인 현상을 통틀어 이르는 말. 바람, 구름, 비, 눈, 더위, 추위 따위를 이른다. = 날씨
- ③ · 改正(개정/ 고칠 개, 바를 정) - 주로 문서의 내용 따위를 고쳐 바르게 함.
- 改定(개정/ 고칠 개, 정할 정) - 이미 정하였던 것을 고쳐 다시 정함.
- ④ · 收容(수용/ 거둘 수, 용납할 용) - 범법자, 포로, 난민, 관객, 물품 따위를 일정한 장소나 시설에 모아 넣음.
- 受容(수용/ 받을 수, 용납할 용) - ① 어떠한 것을 받아들임. / ② 감상(鑑賞)의 기초를 이루는 작용으로, 예술 작품 따위를 감성으로 받아들여 즐김.
- ⑤ · 現象(현상/ 나타날 현, 코끼리 상) - 인간이 지각할 수 있는, 사물의 모양과 상태.
- ㉠ 열대야 현상/ 핵가족화 현상/ 피부 노화 현상
- 現狀(현상/ 나타날 현, 형상 상) - 나타나 보이는 현재의 상태.
- ㉡ 현상을 파악하다/ 현상을 유지하다

10. 다음 <보기>의 글이 들어갈 위치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아주 극단의 예로, 왕조말의 시인 황매천(黃梅泉)은 합방의 소식을 듣고 ‘難作人間識字人’—사람 가운데도 식자나 한다는 사람이 되기가 이렇게도 어렵구나 하는 시를 남기고 자결을 했다. 하물며 하루 세 끼 밥 먹기 위해, 혹은 단지 호강하고 편히 살기 위해 직업을 택한다는 것은, 지식인으로서 차마 취하지 못할 일인 것은 더 말할 것 없다.

- (가) 직업이 그저 일신의 고식지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직업을 통해 사회에 무엇인가 기여하는 것이고 또 그래야만 하는 것이라는 것은, 직업을 논하는 경우의 정석처럼 되어 있는 대목이다. 지계를 지진 구두담이를 하건, 자신이 의식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그것은 훌륭히 사회에 기여를 하고 있다.
- (나) 그러나 직업을 통해 사회에 기여해야 한다는 의식을 마땅히 가진 직한 사람들이 그것을 갖지 못하거나, 아예 그것을 귀찮다고 외면하는 수도 있다. 직업을 한낱 고식지계로 타락시켜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수가 있다.
- (다) 세상이 하고많은 부정부패가 있다고들 하고, 그 부정부패가 불학무식(不學無識)한 사람들에서보다 식자(識字)나 한다는 사람들 가운데서 더 심각하게 저질러지고 있는 것을 보면, 직업을 통한 사회적 분담이라는 의식은 그렇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닌지도 모르겠다.
- (라) 우수한 대학을 나오는 젊은이들 가운데도 경우에 따라서는 우선 직업을 얻는 데조차 힘이 드는 수도 있기는 할 것이다. 그런 정도로 오늘 현재의 우리 사회는 몹시 병든 구석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비록 비현실적이라는 말을 듣는 한이 있더라도, 지식인의 직업은 역시 고식지계일 수는 없다.
- (마) 자기의 개성에 따라, 이것이 나의 생계를 위할 뿐 아니라 사회에 대한 나의 참여, 분담, 공헌, 기여의 길이라고 확신하여 얻은 직업에는 자기의 전 생명을 기울여 마땅하다. 내 직업에 전 생명을 기울이는 가운데서, 비로소, 이 세상에 태어나 남들이라고 다 기회가 있는 것도 아닌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세상의 발전에 다소의 값음이라도 할 수 있는 길이 트일 것으로 믿는다.
- (바) 명예다, 부다, 그 밖에 세상에서 흔히 즐기는 가치들은 내 직업에 전 생명을 기울이는 부산물로서 와주면 더욱 좋고, 아니 와준다면 해를 타할 것 없는 것이 될 것으로 믿는다.

- ① (가)와 (나) 사이 ② (나)와 (다) 사이
③ (다)와 (라) 사이 ④ (라)와 (마) 사이
⑤ (마)와 (바) 사이

■ 정답 : 4

* <보기>는 ① 예시이며, ② <지식인의 직업은 단지 생계와 호강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지식인의 직업이 생계의 수단이 되어서만은 안 된다는 내용의 뒤에 오는 것이 자연스러우므로 (라)와 (마) 사이에 오는 것이 좋다.

■ <내용 정리>

- (가) 직업을 통해 사회에 기여해야 한다.
- (나) 그러나 마땅히 그러한 의식을 가져야 할 사람이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
- (다) 지식인에게서 오히려 부정부패가 더 많이 발견된다.
- (라) 직업을 구하는 것조차 힘이 들지만, 지식인의 직업은 생계의 수단이 되어서만은 안 된다.

- (마) 생계를 위할 뿐 아니라 생명을 기울이는 직업이 되어야 한다.
- (바) 명예와 부는 생명을 기울이는 직업에 부산물일 뿐이다.

11. 다음 중 시적 화자의 정서가 <보기>의 시와 가장 가까운 것은?

— <보 기> —

맛음이 어린 後 | 니 ㅎ는 일이 다 어리다
萬重雲山에 어니 님 오리마는,
지는 님 부는 바람에 幸혀 권가 ㅎ노라.

- ① 風霜이 섰거 친 날에 갓 픽은 黃菊花를
金盆에 7득 다마 玉堂에 보니오니,
桃李야, 곳이오냥 마라, 님의 뜻을 알패라.
- ② 말업슨 靑山이오 態업슨 流水 | 로다
갑업슨 淸風과 임즈업슨 明月이로다
이등에 일업슨 니몸이 分別업시 늑그리라.
- ③ 靑草 우거진 골에 ㅈ는다 누엇는다
紅顏을 어디 두고 白骨만 못챜는다
췌 잡아 勸ㅎ리 업스니 글을 슬혀 ㅎ노라.
- ④ 뫼버들 갈히 ㅈ거 보내노라 님의손디
자시는 窓 ㅈ긔 심거 두고 보쇼셔
밤비에 새닙 ㅈ 나거든 날인가도 너기쇼셔.
- ⑤ 늑고 病든 情은 菊花에 ㅈ쳐두고
실갓치 ㅎ튼 愁心 黑葡萄에 ㅈ쳐노라
귀밋틱 ㅎ나는 白髮은 一長歌에 ㅈ쳐노라.

■ 정답 : 4

<전문 풀이>

<보기> 마음이 어리석으니 하는 일이 다 어리석다.

만중운산(겹겹이 구름 낀 산중)에 어느 임도 올 리 없건만
떨어지는 잎과 부는 바람에 행여 임인가 생각한다.

→ 화자의 정서 - 임을 그리워하는 마음

④ 산버들 가려 꺾어 보내노라 임에게

주무시는 창 밖에 심어 두고 보소서

밤비에 새 잎 곧 나거든 나인가 여기소서.

→ 화자의 정서 - 임에 대한 그리움(임에게 자신을 상징하는 산버들을 보냄)

■ <오답 풀이>

① 풍상이 섞어 친 날에 갓 핀 황국화를 / 금분에 가득 담아 옥당에 보내오니 /

도리야 꽃인 양 마라 임의 뜻을 알겠다

→ 임금께서 자신에게 금분을 하사하신 것을 통해 깨달아, 지조 높은 선비가 되기를 소망함.

② 말없는 청산이요 태(態)없는 유수로다 / 값없는 청풍이요 임자 없는 명월이라

이 중에 병 없는 몸이 분별없이(걱정 없이) 늑으리라

→ 자연 친화, 물아일체(物我一體)

③ 청초(푸른 풀)만 우거진 무덤에 자는가, 누워 있는가. / 홍안(젊고 어여쁜 얼굴)을 어디 두 고 백골만 묻혀 있는가 / 잔 잡아 술 한 잔 권해 줄 사람이 없으니 그것을 슬퍼하노라

→ 임의 죽음을 슬퍼함.

⑤ 늑어 병든 몸의 안타까운 심정은 맑고 아담스레 피어난 국화꽃으로 다스리고/

실같이 흐트러진 시름은 먹 붓으로 포도송이를 그림으로써 잊어 버리고/
귀 밑에 흘날리는 흰 머리카락은 사설시조를 한 수 읊조리면서 달래어 보곤 한다.
→ 늠름을 한탄함(탄로가).

12. 다음 글의 연결 순서로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 (가) 어느 날 건축가 김진애 선배가 골똥히 생각에 잠겨 있다가 툭, 한 마디 던졌다. “제주올레, 어때?”
- (나) 주위 사람들에게 내가 왜 길을 만들려고 하는지, 내가 만들 제주 길에 어떤 풍경들이 펼쳐지는지를 입술이 부르트게 설명했다. 제주 걷는 길, 섬길, 제주 소로길…… 술한 아이디어가 쏟아졌지만, 맘에 쏙 드는 건 없었다.
- (다) 길을 만들기에 앞서서 길 이름부터 짓기로 했다. 이름은 곧 깃발이요 철학이기에, 제주가 지닌 독특한 매력을 반영하면서도 길에 대한 나의 지향점이 오롯이 담긴 이름이라야만 했다.
- (라) 내가 구상하는 길은 실용적 목적을 지닌 길이 아니다. 그저 그곳에서 놀멍, 쉬멍, 걸으멍 가는 길이다. 지친 영혼에게 세상의 짐을 잠시 부려놓도록 위안과 안식을 주는 길이다. 푸른 하늘과 바다, 싱그러운 바람이 함께 하는.
- (마) 귀가 번쩍 뜨였다. 대부분이 육지 출신이라서 그게 뭘 소리여, 의아한 눈치였지만 ‘올레’는 제주 출신인 내게는 참으로 친근하고 정겨운 단어였다. 자기 집 마당에서 마을의 거리길로 들고나는 진입로가 올레다.

- ① (가)-(마)-(나)-(다)-(라) ② (나)-(다)-(라)-(가)-(마)
- ③ (다)-(나)-(가)-(마)-(라) ④ (다)-(나)-(라)-(가)-(마)
- ⑤ (다)-(라)-(나)-(가)-(마)

■ 정답 : 5
* (가)와 (마)의 연결은 이미 문제의 선택지에서 모두 보여주고 있는 힌트이기도 하다.
따라서 (가)와 (마)의 연결을 두고 전체의 흐름을 확대해가야 한다. 두 번째 문제의 열쇠는 글 (나)의 연결이다. (나)는 반드시(가)와 연결되어야만 하는데, (나)를 연결하면 선택지 ③과 ⑤ 사이에서 선택하는 문제만이 남는다. 마지막 열쇠는 (라)가 글 끝에 오면 어색하다는 것이다. (라)는 (나)와 연결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다. 따라서 정답은 ⑤가 된다.
※ 순서 문제는 짧은 시간 내에 푸는 것이 관건이다. 따라서 반드시 주어진 선택지를 지도로 잘 이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글의 내용 정리>
(다) 길의 이름을 짓기로 함. - (라) 내가 구상하는 길은 놀멍 쉬으멍 가는 길. - (나) 주위 사람들에게 구상을 소개했지만 맘에 드는 이름이 없음. - (가) 어느 날 김진애 선배의 ‘올레’ 이름 제안. - (마) ‘올레’라는 이름이 맘에 듦.

13. 다음 글의 서사 전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러한 생각을 하고 앉았을 때에 승의 곁에는 서슬이 푸른 경관 세 명이 달려왔다. 승은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났다. 셋 중에서 가장 똑똑해 보이는 순사가 바짝 승의 가슴 앞에 와 서며,
“당신 무엇이요?” 하고 무뚝뚝하게 물었다.
“무엇이요?” 하는 말에 승은 좀 불쾌했다.
“나 사람ियो.” 하고 승도 불쾌하게 대답하였다.
“그런 대답이 어디 있어?” 하고 곁에 섰던 순사가 승에게 대들었다.
“사람더러 무엇이냐고 묻는 법은 어디 있어?” 하고 승도 반말로 대답했다.
“이놈아, 그런 말버릇 어디서 배워먹었어?” 하고 곁에 섰던 또 다른 순사가 승의 따귀를 갈겼다. 연거푸 두 번을 갈기는 판에 승의 모자가 땅에 떨어졌다.
처음에 승에게 ‘당신 무엇이요’ 하던 순사가 수첩을 꺼내어 들고, “성명이 무어?” 하고 신문하는 구조다.
“내가 무슨 죄를 지은 것이 아니거든, 왜 까닭 없는 사람더러 불공하게 말을 하오?” 하고 승은 뺨대었다.
“아마 이놈이 동네 농민들을 선동을 하여서 농업 기수에게 폭행을 시켰나 보오. 이놈부터 묶읍시다.” 하고 한 순사가 일본말로 하였다.
승은 어떤 영문을 몰라서 어안이 병병하였다. 그러나 이 순사들은 자기를 따라온 것이 아니요, 이 동네 농민과 기수 새에 무슨 갈등이 생겨서 농민들을 잡으러 오는 것임을 짐작하였다. 그리고는 일변은 변호사인 직업의식으로, 또 일변은 자기가 일생을 위해서 바치려는 살여울 동네 농민에게 무슨 중대 사건이 생겼다 하는 의식으로 이 자리에서 쓸데없는 말쟁을 일으키는 것이 옳지 아니한 것을 깨달았다.
“나는 오늘 아침차로 서울서 내려온 사람ियो. 지금 내 고향인 살여울로 가는 길ियो.” 하고 역시 일본말로 냉정하게 대답하였다. 승의 유창하고 점잖은 일본말과 또 냉정한 어조에 수첩을 내어든 순사는 좀 태도를 고쳤다.
“오늘 차에서 내렸소?” 하고 일본말로 좀 순하게 물었다.
“그렇소.”
“그랬으면 자네네들 이 사람 보았겠지?” 하고 두 조선 순사를 돌아보았다. 두 순사는 물끄러미 승을 바라보았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응, 본 것 같소.” 하고 싱겁게 대답하였다.
이리해서 급하던 풍운은 지나갔다. 더구나 변호사라는 명함을 보고는 경관들은 좀더 태도를 고쳤다. 승의 따귀를 때린 순사는 약간 머쓱하기까지 하였다. 승은 불쾌한 생각이 용이히 가라앉지 않지만, 이것은 시골에 으레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꿀떡 참았다-아니 참기로 별수가 있으라마는.

- ① 전지적 위치에 있는 서술자가 사건의 진행과정을 기술하고 있다.
- ② 갈등을 유발한 상황이 진행되는 과정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 ③ 서술자는 부분적으로 사건의 진행과정에 개입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 ④ 인물들 간의 대화를 통해서도 사건의 진행과정이 드러나도록 하고 있다.
- ⑤ 인물의 심리적인 갈등은 외적인 갈등에 비해 부차적인 대상으로 서술되고 있다.

■ 정답 : 5
* 출전 : 이광수, <흙>
⑤ 인물의 심리적인 갈등은 외적인 갈등에 비해 부차적인 대상으로 서술되고 있다(X).

→ <순사>와 <승>이 벌이는 외적 갈등과 <승>의 내면적 갈등(‘승은 어떤 영문을 몰라 ~ 옳지 아니한 것을 깨달았다.’)이 대등하게 서술되고 있다.

■ <심화 학습>

- ① 전지적 위치에 있는 서술자가 사건의 진행과정을 기술하고 있다.
→ ‘나’라는 명칭이 나타나지 않으며, ‘승’, ‘순사’와 같은 외부적 명칭이 주를 이루고,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심리를 모두 읽고 있는(‘승은 좀 불쾌했다.’/ ‘승은 ~ 어안이 병병했다.’ 등)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 ② 갈등을 유발한 상황이 진행되는 과정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 주어진 전체 내용은 ‘승’이 ‘순사’에게 잡혀와 겪고 있는 대립 상황이 중심이다.
- ③ 서술자는 부분적으로 사건의 진행과정에 개입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 중간에 ‘승’의 내적 갈등을 다루는 부분에서 가장 뚜렷이 나타난다(‘승은 ~ 깨달았다.’).
- ④ 인물들 간의 대화를 통해서도 사건의 진행과정이 드러나도록 하고 있다.
→ 주어진 단락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대화>가 글 전개 of 주요한 방식이 되고 있다.

14. 다음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나는 꿈꾸었노라, 동무들과 내가 가지런히
별가의 하루 일을 다 마치고
석양에 마을로 돌아오는 꿈을,
즐거이, 꿈 가운데.

그러나 집 잃은 내 몸이여,
바라건대는 우리에게 우리의 보습 대일 땅이 있었더라면!
이처럼 떠돌으랴, 아침에 저물손에
새라 새로운 탄식을 얻으면서.

동이랴, 남북이랴,
내 몸은 떠가나니, 불지어다,
희망의 반짝임은, 별빛이 아득함은.
물결뿐 떠올라라, 가슴에 팔다리에.

그러나 어쩌면 황송한 이 심정을! 날로 나날이 내 앞에는
자칫 가늘은 길이 이어가라. 나는 나아가리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보이는 산비탈엔
온 새벽 동무들 저저 혼자…… 산경을 김매이는.

- ① 1연에서는 평화로운 삶에 대한 기대를 드러내고 있다.
- ② 2연에서는 삶을 터전을 잃고 헤매는 삶의 고통을 그리고 있다.
- ③ 3연에서는 유랑하면서도 희망을 확신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 ④ 4연에서는 절망적인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 ⑤ 유사어구의 반복과 영탄적 어조를 통해 정서를 표출하고 있다.

■ 정답 : 3

- ◆ 출전 : 김소월, <바라건대는 우리에게 우리의 보습 대일 땅이 있었더라면>
 - 성격 : 저항적, 의지적, 참여적
 - 어조 : 남성적이고 의지적인 어조
 - 주제 : 경작할 토지에 대한 소망과 현실 극복 의지
- * 3연에서는 유랑하면서도 희망의 마음을 버리지 않는 모습(‘떠올라라.’)이 나타나고 있는 있지만, 그 희망에 대한 ‘확신’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

■ <심화 학습>

- ① 1연에서는 평화로운 삶에 대한 기대를 드러내고 있다.
→ 나는 하루 일을 마치고 마을로 즐거이 돌아오는 꿈을 꾸었다.
- ② 2연에서는 삶을 터전을 잃고 헤매는 삶의 고통을 그리고 있다.
→ 그러나 보습 대일 땅도 없이 나는 떠돌고 있다.
- ④ 4연에서는 절망적인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 그러나 내 앞에 가는 길이 이어가지만 나는 나아가리라!
- ⑤ 유사어구의 반복과 영탄적 어조를 통해 정서를 표출하고 있다.
→ 유사어구의 반복 - 떠돌으랴 / 동이랴 남북이랴, 반짝임은 /아득함은 등
영탄적 어조 - 꿈꾸었노라!/ 내 몸이여!/ 땅이 있었더라면!/ 나는 나아가리라! 등

15. 다음 중 <보기>의 (가)와 (나)의 연결 관계가 옳은 것은?

<보 기>

(가) 공문서 작성 시 유의할 점 - 정확한 단어 선택

- ㉠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써야 함
- ㉡ 공문에서 표현의 경제성을 얻기 위해 단어를 배열하는 경우 부자연스러운 경우가 많이 나타남
- ㉢ 단어가 사전적 의미 이외에 담고 있는 사회적 가치 및 인식까지 고려하여 써야 함

(나) 공문서에서 발견되는 오류 또는 개정 사례

- ㉠ 환경보전에 관심이 많은 사회 각계각층 및 지역사회 of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인사를 명예환경감시원으로 위촉하고 운영함으로써
- ㉡ 행정 활동에 임할 때, 국세 공무원은 견제와 균형자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함
- ㉢ 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 조례의 내용 중, ‘부녀청소년 아동복지 분야’를 ‘여성청소년 아동복지 분야’로, ‘부녀 상담 처리’를 ‘여성 상담 처리’로 바꿈
- ㉣ 장애인 관련 문서를 작성할 때 ‘일반인’이나 ‘정상인’과 같은 용어의 사용을 자제하도록 함

- ① (나)의 ㉠에는 (가)의 ㉠과 관련된 오류가 나타난다.
- ② (나)의 ㉡에는 (가)의 ㉡ 및 ㉢과 관련된 오류가 나타난다.
- ③ (나)의 ㉢은 (가)의 ㉠을 고려한 사례이다.
- ④ (나)의 ㉣는 본질적으로 (가)의 ㉠과 관련된 사례이다.
- ⑤ (나)의 ㉠와 ㉡는 (가)의 ㉡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사례들이다.

■ 정답 : 5

- * (나)의 ㉠ -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인사를 명예환경감시원으로 <위촉하고 운영함으로써>(X) → <인사를 위촉하고/ (조직을) 운영하여> (O)
- (나)의 ㉡ - 국세공무원은 <견제와 균형자>의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함(X). → <견제자와 균형자>의 역할을 성실하게 ~ (O)
- ⇒ (나)의 ㉠, ㉡는 (가)의 ㉡과 관련된 오류.
- <심화 학습>
- * (나)의 ㉢ - ‘부녀청소년’과 ‘부녀 상담 처리’를 ‘여성청소년’과 ‘여성 상담 처리’로 바꾼 것은 단어가 가진 사전적 의미 이외의 사회적 가치 및 인식까지 고려했기 때문이다.
- * (나)의 ㉣ - 장애인 관련 문서를 작성할 때 ‘일반인’이나 ‘정상인’과 같은 용어의 사용을 자제한 것 역시 단어가 가진 사회적 가치 및 인식까지 고려했기 때문이다.
- ⇒ (나)의 ㉢, ㉣는 (가)의 ㉢과 관련된 오류.

16. 다음 중 띄어쓰기가 옳지 않은 것은?

- ① 그 가수의 노래는 들을만하다.
- ② 내가 그 사람을 만난 것은 지난봄이었다.
- ③ 그녀가 나타나자 그들은 안절부절못했다.
- ④ 제아무리 빨라도 그를 따라잡지는 못할 것이다.
- ⑤ 그는 조만간 알프스산을 오를 예정이다.

■ 정답 : 5

* 알프스산(X) → 알프스 산(O)

※ 외래어 뒤에 해(海), 섬, 강(江), 산(山)이 올 때는 띄어 쓴다.

■ <심화 학습>

① 그 가수의 노래는 들을만하다.

→ <만하다, 듯하다, 채하다, 척하다, 성싶다 등>의 보조용언은 앞말과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붙여 쓸 수 있다.

- 들을 만하다(O). / 들을만하다(O).

② 내가 그 사람을 만난 것은 지난봄이었다.

→ ‘지난봄(명사)’은 한 단어로 붙여 쓴다.

③ 그녀가 나타나자 그들은 안절부절못했다.

→ ‘안절부절못하다(동사)’는 한 단어로 붙여 쓴다.

④ 제아무리 빨라도 그를 따라잡지는 못할 것이다.

→ ‘제아무리(부사)’는 한 단어로 붙여 쓴다.

17. 다음 글에서 제시하고 있는 ‘융합’의 사례로 보기 어려운 것은?

1980년 이후에 등장한 과학기술 분야의 가장 강력한 트렌드는 컨버전스, 융합, 잡종의 트렌드이다. 기존의 분야들이 합쳐져서 새로운 분야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몇 가지 새로운 분야가 또 합쳐져서 시너지 효과를 낸다. 이러한 트렌드를 볼 때 미래에는 과학과 기술, 순수과학과 응용과학의 경계가 섞이면서 새롭게 만들어진 분야들이 연구를 주도한다는 것이다. 나노과학기술, 생명공학, 물질공학, 뇌과학, 인지과학 등이 이러한 융합의 예이다. 연구대학과 국립연구소의 융합성쇠는 이러한 융합의 경향에 기존의 학문 분과 제도를 어떻게 잘 접목시키느냐에 달려 있다.

이러한 융합은 과학기술 분야 사이에서만만이 아니라 과학기술과 다른 문화적 영역에서도 일어난다. 과학기술과 예술, 과학기술과 철학, 과학기술과 법 등 20세기에는 서로 별개의 영역 사이의 혼성이 강조될 것이다. 이는 급격히 바뀌는 세상에 대한 새로운 철학과 도덕, 법률의 필요성에서 기인한다. 인간의 유전자를 가진 동물이 만들어지고, 동물의 장기가 인간의 몸에 이식도 되고 있다. 생각만으로 기계를 작동시키는 인간-기계의 인터페이스도 실험의 수준을 지나 곧 현실화되는 단계에 와 있다. 인간-동물-기계의 경계가 무너지는 세상에서 철학, 법, 과학 기술의 경계도 무너지는 것이다.

20년 후 과학기술의 세부 내용을 지금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융합 학문과 학제 간 연구의 지배적 패러다임화, 과학과 타문화의 혼성화, 사회를 위한 과학 기술의 역할 증대, 국제화와 합동 연구의 증가라는 트렌드는 미래 과학 기술을 특징짓는 뚜렷한 트렌드가 될 것이다.

- ① 유전공학, 화학 독성물, 태아 권리 등의 법적 논쟁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을 담은 책
- ② 과학자들이 이론 연구 성과들이 어떻게 재판의 사실 인정 기준에 영향을 주는가를 탐색하고 있는 책
- ③ 과학기술과 법이 만나고 충돌하는 지점들을 탐구하고, 미래의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둘 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제시한 책
- ④ 과학은 신이 부여한 자연법칙을 발견하는 것이며, 사법 체계도 보편적인 자연법의 토대 위에 세워진 것이라는 주장을 펴는 책

⑤ 과학자는 과학의 발전 외에 인류의 행복이나 복지 등에는 그리 관심이 많지 않다는 전제 하에 과학 기술에 대해 평가할 수 있도록 법조인에게 과학 교육이 필요함을 주장한 책

■ 정답 : 4

* 제시된 글은 ‘과학과 기술’, ‘순수과학과 응용과학’, ‘과학기술과 예술’, ‘과학기술과 철학’, ‘과학기술과 법’ 등과 같은 융합 학문에 대해 다루고 있다. 따라서 ④와 같이 과학의 법칙과 사법 체계의 법칙에 대해 각각 주장을 펴는 것은 ‘융합’과 거리가 멀다.

※ [18 ~ 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휴리스틱(heuristic)은, 문제를 해결하거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지만 명확한 실마리가 없을 경우에 사용하는 편의적·발견적인 방법이다. 우리말로는 쉬운 방법, 간편법, 발견법, 어림셈 또는 지름길 등으로 표현할 수 있다.

1905년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노벨 물리학상 수상 논문에서 휴리스틱을 ‘불완전하지만 도움이 되는 방법’이라는 의미로 사용했다. 수학자인 폴리아는 휴리스틱을 ‘발견에 도움이 된다’는 의미로 사용했고, 수학적인 문제 해결에도 휴리스틱 방법이 매우 유효하다고 했다.

휴리스틱에 반대되는 것이 알고리즘(algorithm)이다. 알고리즘은 일정한 순서대로 풀어나가면 정확한 해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다. 삼각형의 면적을 구하는 공식이 알고리즘의 좋은 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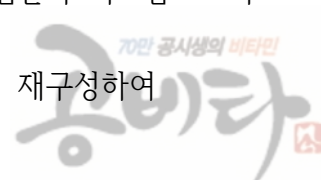
휴리스틱을 이용하는 방법은 거의 모든 경우에 어느 정도 만족스럽고, 경우에 따라서는 완전한 답을 재빨리, 그것도 큰 노력 없이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사이먼의 ‘만족화’원리와 일치하는 사고방식인데, 가장 전형적인 양상이 ‘이용 가능성 휴리스틱(availability heuristic)’이다. 이용 가능성이란 어떤 사상(事象)이 출현할 빈도나 확률을 판단할 때, 그 사상과 관련해서 쉽게 알 수 있는 사례를 생각해 내고 그것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휴리스틱은 완전한 답이 아니므로 때로는 터무니없는 실수를 자아내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불확실한 의사결정을 이론화하기 위해서는 확률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확률을 어떻게 다루는지가 중요하다. 확률은, 이를테면 어떤 사람이 선거에 당선될지, 경기가 좋아질지, 시험에서 어느 편이 우승할지 따위를 ‘전망’할 때 이용된다. 대개 그러한 확률은 어떤 근거를 기초로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직감적으로 판단을 내리게 된다. 그런데 직감적인 판단에서 오는 주관적인 확률은 과연 정확한 것일까?

카너먼과 트버스키는 일련의 연구를 통해 인간이 확률이나 빈도를 판단할 때 몇 가지 휴리스틱을 이용하지만, 그에 따라 얻어지는 판단은 객관적이며 올바른 평가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의미로 종종 ‘바이어스’가 동반되는 것을 확인했다.

이용 가능성 휴리스틱이 일으키는 바이어스 가운데 하나가 ‘사후 판단 바이어스’이다.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진 뒤에 ‘그렇게 될 줄 알았어.’ ‘그렇게 될 거라고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와 같은 말을 자주 한다. 이렇게 결과를 알고 나서 마치 사전에 그것을 예견하고 있었던 것처럼 생각하는 바이어스를 ‘사후 판단 바이어스’라고 한다.

18. 윗글의 논지 전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분석 대상과 관련되는 개념들을 연쇄적으로 제시하며 정보의 확대를 꾀하고 있다.
 - ② 인과 관계를 중심으로 분석 대상에 대한 논리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 ③ 핵심 개념을 설명하면서 그와 유사한 개념들과 비교함으로써 이해를 돕고 있다.
 - ④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를 다양한 맥락에서 재구성하여



반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⑤ 핵심 개념의 속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들을 통해 구체적인 설명을 시도하고 있다.

■ 정답 : 1

■ * <내용 정리>

‘휴리스틱’의 개념 - 아인슈타인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의 ‘휴리스틱’에 대한 정의 - ‘휴리스틱’에 반대되는 ‘알고리즘’ - ‘휴리스틱’과 가장 가까운 사이먼의 ‘만족화 원리’ - ‘휴리스틱’의 문제점 ‘확률’ - ‘확률’에 동반되는 ‘사후 판단 바이어스’

→ 서술자는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휴리스틱’과 관련되는 개념들을 제시하며 계속해서 논의를 확대해 가고 있다.

■ <오답 정리>

② 인과 관계를 중심으로 분석 대상에 대한 논리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 ‘인과 관계’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③ 핵심 개념을 설명하면서 그와 유사한 개념들과 비교함으로써 이해를 돕고 있다.

→ ‘핵심 개념’에 대한 설명은 있지만, ‘유사한 개념들’을 비교하고 있지는 않다.

④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를 다양한 맥락에서 재구성하여 반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다양한 맥락에서 반복적’으로 제시하기보다 연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⑤ 핵심 개념의 속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들을 통해 구체적인 설명을 시도하고 있다.

→ ‘사례’가 사용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글의 진술 방식의 초점은 아니다.

19. 뒷글에서 설명하고 있는 ‘휴리스틱’과 ‘바이어스’의 관계를 보여주는 데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평소에 30분 정도 걸리기에 느긋하게 출발했는데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는 바람에 늦어졌다.
② 그녀는 살을 빼려고 운동을 시작했는데 밥맛이 좋아지면서 오히려 몸무게가 늘었다.
③ 최근 한 달 동안 가장 높은 타율을 기록한 선수를 4번 타자에 기용했는데 4타수 무(無)안타를 기록하였다.
④ 동네 마트에서 추첨 세일을 한다기에 식구들이 다 나섰는데 한 집에 한 명만 참여할 수 있다고 한다.
⑤ 작년에 텃밭에서 제일 재미를 본 채소를 집중적으로 심었는데 유례없이 병충해가 돌아 몽땅 망치고 말았다.

■ 정답 : 3

* 서술자는 ‘바이어스’가 ‘객관적이며 올바른 평가와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선택지 모두 해당)’ ‘직감적인 판단에서 오는 주관적인 확률’과 관계되어 ‘휴리스틱’의 문제점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 ‘확률’과 관계없는 선택지를 제하고 - ②, ④

㉡ <주관적> 원인과 관계없는 <외부적> 원인의 선택지를 제하면 - ①(교통사고), ⑤(병충해)

→ 정답은 ③이 된다.

20. 아래 틀린 문장들을 고쳐 써야 할 이유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수출 통관 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 중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 문장 성분이 생략되어 어색한 문장임
②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 특정 성분이 중복되어 바른 문장이 아님

- ③ 사업목적: 본 사적지 내의 고분은 고고학적으로는 이 지역의 중요한 6세기의 횡혈식 고분임 → 수식어들의 순서가 바르지 않아 말하고자 하는 바가 명료하게 드러나지 않음
④ 택지 개발을 하면서 주위의 역사적 환경이 크게 훼손되어 그 상태로 보존함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쟁점이 되고 있어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함 → 문장 성분이 중복되어 뜻이 분명하지 않음
⑤ 멕시코에서 또 하나 주의할 사항은 과음을 삼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양주보다는 데킬라를 마시는 게 좋다. → 문장 성분 간 호응이 잘못되어 어색한 문장임

■ 정답 : 4

* 제시된 문장을 주어 술어 관계만으로 크게 나누어 보면,

‘역사적 환경이/ 훼손되다 + 타당한지에/ 쟁점이 되다 +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다.’의 짜임으로 <타당한지가(주어) /쟁점이 되다(술어).>로 수정하면 의미가 명백해진다.

→ 문장 성분이 중복된 것이 아니라 <문장 성분 간 호응이 잘못되어 어색하다.>

<심화 학습>

① 수출 통관 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 중/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 <(무엇을) 개정하고, (무엇을) 고시합니다.>와 같이 목적어를 밝혀야 의미가 명백함.

②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 폐지한다(서술어) - 규정을, 이를(목적어) ⇒ 목적어가 중복되었다.

③ 사업목적: 본 사적지 내의 고분은/ 고고학적으로는/ 이 지역의 중요한 6세기의 횡혈식 고분임 → ‘중요한’이 수식하는 것이 ‘6세기’인지 ‘고분’인지 모호함.

⑤ 멕시코에서/ 또 하나 주의할 사항은/ 과음을 삼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양주보다는 데킬라를 마시는 게 좋다. → 주의할 <사항>은 (과음을~ 좋다)는 것이다.’의 짜임이 되어 ‘명사는 명사다’의 주술 호응 짜임을 지켜야 한다.

21. 다음 중 두 사람의 대화가 표현상 어색하지 않은 것은?

- ① 장인: 김 서방, 이리 와서 이 책들을 옮겨 주게.
사위: 네, 아버님.
② 손님: 이 휴대전화를 사고 싶습니다. 한 달 요금이 얼마인가요?
점원: 네, 고객님의 매월 45,000원 되세요.
③ 간호사: 홍길동 님, 어느 분이세요?
환자: 접니다.
간호사: 이쪽에 잠깐 앉아 계실게요.
④ 부장: 자네, 이것 할 수 있겠나?
대리: 네, 하시라면 해야죠.
⑤ 선생님: 철수야, 아버지의 이름이 무엇이지?
학생: 네, 저의 아버지 함자는 홍자 길자 동자이십니다.

■ 정답 : 1

* 장인어른은 사위에게 ‘주게’와 같은 <하계체>의 상대 높임의 격식체를 사용하고 있고, 사위는 장인어른을 ‘아버님’이라고 바르게 호칭하고 있다.



- <오답 정리>
- ② 점원: 네, 고객님의 매월 45,000원 되세요(X).
-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고객이 돈이 되어야 한다.
- 따라서 ‘고객님의 경우, (해당 요금은) 45,000원입니다.’ 정도가 적절하다.
- ③ 간호사: 이쪽에 잠깐 앉아 계실게요(X).
- 주어진 대로 해석하면 간호사가 앉아 있겠다는 표현이며 스스로를 높이고 있다.
- 따라서 ‘이쪽에 잠깐 앉아 계세요.’ 정도가 바른 표현이다.
- ④ 대리: 네, 하시라면 해야죠(X).
- 문자적으로 풀면 ‘(제가) 하시라고 (부장님께서) 하면’의 의미가 되어 자신을 높이고 부장님을 낮추는 표현이 된다.
- 따라서 ‘(제가) 하라고 (부장님께서) 하시면’ = ‘하라면’으로 표현해야 한다.
- ⑤ 선생님: 철수야, 아버지의 이름이 무엇이지(X)?
- 학생: 네, 저의 아버지 함자는 흥자 길자 동자이십니다(X).
- 학생의 부모님의 ‘이름’은 ‘성함, 존함’등으로 표현해야 하며, 자신의 아버님의 성함을 말할 때 성에는 ‘자’를 붙이지 않는다.
- ㄱ 선생님: 철수야, 아버지의 성함이 무엇이지?
- ㄴ 학생: 네, 저의 아버지 함자는 흥 길자 동자이십니다.

※ [22 ~ 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나라가 독립(獨立)이 되려면 남과 달라 독립이 아니라 남과 같아야 독립이 되는 것인데, 내 나라에 좋은 것이 있으면 그것은 아무쪼록 내버리지 말고 특별히 배양하여 세상에 행세할 만큼 만들어 놓고 남을 대하여 말하되, 우리나라에도 이러 저러한 좋은 것이 있다고 자랑하는 것이 독립하는 사람의 승벽()이거늘, 조선은 남을 대하여 자랑할 것이 별양(別樣) 없으니까, 아무쪼록 남의 좋은 것을 본받아 내 것을 만들고 몇 해 후에나 남을 대하여 우리나라에도 그만큼 좋은 것이 있다고 할 날이 있을 터이요, 본래는 어느 나라에서 본받아 왔든지 지금은 우리나라 것이 되었다고 할 터인데, 조선에 그 중 생각 있고 학문 있게 만든 것은 조선 국문이라.

조선 사람들이 대개 완고하여 좋은 것이라도 남의 것은 본받기를 좋아 아니하고 조선 것은 지키기를 즐거워하나, 글에 당하여서는 좋은 조선 글은 내버리고 청국 글을 기어이 배워 그 글을 쓰기를 숭상하니, 매우 이상한 것이 조선 글이 청국 글만 못 할 것 같으면 암만 내 것이라도 내버리고 남의 나라 글을 숭상하는 것이 진보하는 사람의 일이지와, 백배나 나은 국문을 내버리고 어렵고 세상에 경계() 없이 만든 청국 글을 배워 그걸 숭상하기를 좋아하니, 대단히 우습고 개탄할 일이다. 지금 조선에 조금이라도 공부한 사람들은 한문을 공부하였고 국문으로는 공부한 사람이 적은 고로 국문이 실상 어떻게 학문 있게 만든 글인 줄을 조선 사람들이 모르는지라. 나라마다 쓰는 글이라 하는 것은 하는 말과 같아 책을 읽어 들려주면 말하는 것과 일반이거늘, 조선은 한문으로 책을 만들고 문적()을 만들어 읽으니 글과 말이 다른지라. 그리한즉 말공부 따로 하고 글공부 따로 하여야 할 터이요, 설령 글공부한 사람이라도 남이 책 읽는 것을 듣고는 무슨 말인지를 모를지라.

지금 소위 공부하였다는 사람은 국문을 숭상하기를 좋아 아니할 것이 한문을 하였은즉, 그 배운 것을 가지고 남보다 유식한 체 하려니까 만일 국문으로 책과 문적을 만들어 전국 인민이 다 학문 있게 되면 자기의 유식한 표가 드러나지 아니할까 두려워하고, 또 한문을 공부하였고 국문은 공부를 아니 한 고로 한문을 자기의 국문보다 더 아는지라. 그리하나 그런 사람이 국중(國中)에 몇이 있으리오. 수효는 적으나 한문 하는 사람들이 한문 아는 자세()하고 권리를 모두 차지하여 그 나머지 전국 인민을 압제하라는 풍속이니, 국문 숭상하기를 어찌 이런 사람들이 좋아하리오. 그리하나 나라란 것은 몇 사람만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전국 인민을 모두 위하여 만든 것이요, 전국 인민이 모두 학문이 있고 지식이 있게 되어야 그 나라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자주 독립을 보호하며 사농공상이 들어가는 법이라.

22. 괄호 속에 들어갈 한자어가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된 것은?

- ① 勝癖 - 境界 - 門籍 - 姿勢
- ② 勝癖 - 經界 - 文籍 - 姿勢
- ③ 承癖 - 境界 - 門籍 - 藉勢
- ④ 勝癖 - 經界 - 文籍 - 藉勢
- ⑤ 承癖 - 境界 - 文籍 - 姿勢

- 정답 : ④
- 승벽(勝癖 이길 승, 버릇 벽) - 호승지벽(好勝之癖)의 준말. 남과 겨루어 이기기를 좋아하는 성미나 버릇.
- 승벽(承癖 이을 승, 버릇 벽) - 없는 말.
- ‘우리나라에도 이러 저러한 좋은 것이 있다고 자랑하는 것이 독립하는 사람의 승벽이니’
- 경계(經界 길 경, 지경 계) - 옳고 그른 경위가 분간되는 한계.
- 경계(境界 지경 경, 지력 계) - 사물이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분간되는 한계.
- ‘어렵고 세상에 경계 없이 만든 청국 글’ 즉, 기준에 의한 한계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옳고 그른 한계>가 없다는 의미가 더

적절함.

- 문적(文籍 글월 문, 서적 적) - 책(冊)
- 문적(門籍 문 문, 서적 적) - 궁궐, 병영 따위의 문에 드나드는 것을 허락하여 주던 표. 문 표(門標)
- ‘한문으로 책을 만들고 한문으로 문적을 만들어 읽으니’
- 자세(藉勢 깔개 자, 기세 세) - 어떤 권력이나 세력 또는 특수한 조건을 믿고 세도를 부림.
- 자세(姿勢 맵시 자, 기세 세) - 몸을 움직이거나 가누는 모양. 몸 자세나 마음가짐.
- ‘수효는 적으나 한문 하는 사람들이 한문 하는 자세하고 권리를 차지해야’ 즉 한문 하는 사람들이 세도를 부린다는 의미임.

23. 밑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국문은 한문보다 뛰어나다.
- ② 한문을 배우는 사람들은 자신의 지식을 과시하려는 경향이 있다.
- ③ 조선 사람들은 문명국을 본받으려 노력하고 있다.
- ④ 조선이 독립을 이루려면 다른 나라와 동등해져야 한다.
- ⑤ 지식인이 국문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군림하기 위해서이다.

■ 정답: ③

* 둘째 단락의 첫 문장에서 ‘조선 사람들이 대개 완고하여 좋은 것이라도 남의 것은 본받기를 좋아 아니하고 조선 것을 지키기를 즐겨워하나’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③의 ‘조선 사람들은 문명국을 본받으려 노력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심화 학습>

① 국문은 한문보다 뛰어나다.

→ 둘째 단락 ‘백배나 나은 국문을 내버리고 경계 없이 만든 청국 글을 배워’

② 한문을 배우는 사람들은 자신의 지식을 과시하려는 경향이 있다.

→ 셋째 단락 ‘지금 소위 공부하였다는 사람은 ~ 남보다 유식한 체하려니까’

④ 조선이 독립을 이루려면 다른 나라와 동등해져야 한다.

→ 첫째 단락 ‘나라가 독립이 되려면 ~ 남과 같아야 독립이 되는 것인데’

⑤ 지식인이 국문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군림하기 위해서이다.

→ 셋째 단락 ‘수효는 적으나 한문 하는 사람들이 ~ 그 나머지 전 국 인민을 압제하라는 풍속이니’

24. 다음 중 문맥상 ㉠에 들어갈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아가 아가, 우지 마라. 아무리 젖을 달란들 무엇 먹고 젖이 나며 밥을 아무리 달란들 어대서 쌀이 나라.”

이처럼 달랠 제 흥부 마음 인후(仁厚)하여 청산유수요 곤륜백옥(崑崙白玉)이라. 성덕을 본을 삼고 악한 일 멀리하며 물욕에 탐이 없고 주색(酒色)에 무심한지라. 마음이 이러하니 부귀를 바랄소냐. 흥부 아내 이른 말이,

“여보 아이 아버지, 내 말씀 들어 보시오. 부질없이 청렴한 체마오. 안자(顔子)의 누항단표(陋巷簞瓢) 주린 염치 삼십에 조사(早死)하고 백이숙제 주린 염치 수양산에 아사(餓死)하니 청루 소부 울었으며 부질없는 청렴 말고 저 자식들 살려 보사이다. 저 건너 아주버님 댁에 가서 쌀이 되나 돈이 되나 양단간에 얻어 옵소.”

흥부 하는 말

“형님 댁에 갔다가 보리나 타고 오게?”

흥부 아내 착한 마음에 보리라 하니까 먹는 보리로만 알고 하는 말이,

“여보, 배부른 소리 작작하오. 보리는 흉년 곡식이라 느루 먹기는 정말 쌀보다 낫습네다.”

흥부 하는 말이,

“여보 마누라, 보리라니까 갈보리, 봄보리, 늦보리로 아나 보오 그려. 우리 형님이 음식 끝을 볼 양이면 사촌을 몰라보고 가사목이나무 푸레 몽치로 함부로 치는 성품이니 그런 보리를 어떤 놈이 탄단 말인가.”

흥부 아내 하는 말이,

“애고, 이 말이 웬 말이오. 상담(常談)에 (㉠)는 말이 있지 않소. 맞으나 아니 맞으나 쏘아 보다가 그만듭소.”

흥부 이 말 듣고 마지못하여 형의 집으로 건너간다.

- ① 포도청의 문고리라도 잡아 빼라.
- ② 동냥은 아니 주더라도 쪽박은 깨지 말라.
- ③ 마당 벌어진 데 웬 솔뿌리 걱정이나.
- ④ 자식 죽는 건 봐도 곡식 타는 건 못 본다.
- ⑤ 하루 죽을 줄은 모르고 열흘 살 줄만 안다.

■ 정답 : ②

※ 출전 : 고전소설 <흥부전>

* 문맥상 ‘사촌을 몰라보고 함부로 치는 형’이라는 흥부의 말에 ‘그럴 리가 없다.’라는 의미의 흥부 아내의 반박에 해당하는 말은 ‘남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방해는 할 리 없다.’는 의미의 ② ‘동냥은 아니 주더라도 쪽박은 깨지 말라.’가 적절하다.

■ <오답 정리>

① 포도청의 문고리라도 잡아 빼라.

→ 대담하고 겁이 없게 행동하라.

③ 마당 벌어진 데 웬 솔뿌리 걱정이나.

→ 마당이 벌어진데 그릇이 터졌을 때 필요한 솔뿌리를 걱정한다는 뜻으로, 당치도 아니한 것으로 사건을 수습하려 하는 어리석음을 비웃는 말

④ 자식 죽는 건 봐도 곡식 타는 건 못 본다.

→ 농부들이 농사짓는 일에 온 정성을 다함을 이르는 말.

⑤ 하루 죽을 줄은 모르고 열흘 살 줄만 안다.

→ 언제 죽을지 모르는 덧없는 세상에서 자기만은 얼마든지 오래 살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을 보고 이르는 말.

25. 다음 중 사자성어의 풀이가 옳지 않은 것은?

- ① 盲者正門 : 우둔하고 미련한 사람이 어찌하다가 이치에 들어맞는 바른 일을 함
- ② 暴虎馮河 : 용기는 있으나 무모함
- ③ 草露人生 : 청빈하고 소박한 삶



- ④ 上下撐石：임시변통으로 이리저리 건디어 가는 것
- ⑤ 望雲之情：자식이 객지에서 고향에 계신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

■ 정답：③

③ 초로인생(草露人生 풀 초, 이슬 로, 사람 인, 날 생) - 풀잎에 맺힌 이슬과 같은 인생이라는 뜻으로, 허무하고 덧없는 인생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조로인생(朝露人生)

■ <심화 학습>

- ① 맹자정문(盲者正門 눈멀 맹, 사람 자, 바를 정, 문 문) - 맹자가 정문을 바로 찾아 들어간다는 뜻으로, 어리석은 사람이 어쩌다 이치에 들어맞는 일을 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맹인직문(盲人直門), 맹자직문(盲者直門)
- ② 포호빙하(暴虎馮河 사나울 포, 호랑이 호, 탈 빙, 물 하) - 맨손으로 범을 때려잡고 걸어서 황허 강(黃河江)을 건넌다는 뜻으로, 용기는 있으나 무모함을 이르는 말.
- ④ 상하탱석(上下撐石 위 상, 아래 하, 버틸 탕, 돌 석) - 아랫돌 빼서 윗돌 괴고 윗돌 빼서 아랫돌 꺾는다는 뜻으로, 몹시 꼬이는 일을 당하여 임시변통으로 이리저리 맞추어서 겨우 유지해 감을 이르는 말. = 하석상대(下石上臺), 상석하대(上石下臺)
- ⑤ 망운지정(望雲之情, 바랄 망, 구름 운, 갈 지, 뜻 정) - 자식이 객지에서 고향에 계신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 = 망운지회(望雲之懷)